

『규합총서』 「봉임측」에 나타난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향문화(香文化)와 인식

하수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박사수로

sumincense@naver.com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이 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규합총서』는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년)이 편찬한 유서(類書)로, 사대부 가정살림운영에 필요한 지식으로 여긴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본고는 「봉임측」을 중심으로 향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빙허각이 향에 대해 가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밝혀냈다. 이빙허각에게 향은 단순한 미용적 요소와 완물의 기능을 넘어서 건강과 위생, 생활지식에 이르는 다양한 전통지식의 가정생활 운영에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합총서』는 꾸준히 필사되고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 사대부 여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사대부 여성이 남긴 기록이 많이 전하지 않아 『규합총서』를 저술한 이빙허각의 시각을 중심으로 향문화와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빙허각은 향이 대중적인 물품이 아니었음에도 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 활용법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의 지식과 문화 소양을 넓히고, 실용적인 지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던 이빙허각의 의지를 반영한다.

본고는 이빙허각이 향을 가정생활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물품으로 인식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당시 사대부 여성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지식과 실용적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향이 미용과 생활지식 등 다양한 전통지식 분야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물품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통하여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의 향에 대한 인식과 그 활용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규합총서』, 이빙허각, 전통지식, 향문화, 여성 실학자

투고일자 2024. 6. 25. | 심사일자 2024. 7. 18. | 게재확정일자 2024. 8. 7.



I. 머리말

『규합총서(閨閣叢書)』는 1809년(순조 9)에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년)이 편찬한 가정살림 백과전서로, 조선시대 여성이 쓴 유일한 유서(類書)로 평가받는다. 『규합총서』는 주제에 따라 「주사의(酒食議)」, 「봉임측(縫紉則)」, 「산가락(山家樂)」, 「청낭결(靑囊訣)」, 「술수략(術數略)」의 5편제로 구성되었다. 사대부 여성이 집필한 가정생활 유서로 당대 사대부 여성의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규합총서』는 책이 편찬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필사가 진행되고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 그 내용이 주요 독자였던 사대부 여성들의 수요와 공감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규합총서』가 편찬된 조선후기는 청(淸)과 서구의 문물이 소개되고 고증학과 실학의 영향으로 각종 실용서적이 편찬되던 시기였다. 『규합총서』는 여성이 집필한 문집이기에 여성의 시각으로 당대의 생활문화와 음식, 의복, 농경, 의료, 민속분야 등의 전통지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규합총서』를 통한 생활문화 분야의 연구 진행은 미흡하였다. 『규합총서』 연구는 국문학, 서지학 연구와 가정학 분야에서 시작하여 음식문화와 복식문화 연구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외의 생활문화는 연구가 미흡하였다.¹ 본고에서는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향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규합총서』의 5편제 중 음식을 제외한 4편에서 모두 향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봉임측」은 가장 많이

필사되어 현재 8본이 전하고 있으며, 이 중 3본에서 조향법을 다루고 있다. 본고는 독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봉임측」을 중심으로 다양한 향 사용법과 함께 저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부인들이 향낭을 많이 가진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는 내용으로 고려시대 여성들의 향문화를 유추할 수 있다.²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향문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합총서』 「봉임측」을 통하여 사대부 여성의 향문화와 생활문화를 연구하고 나아가 향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빙허각의 생애와 『규합총서』의 편찬

『규합총서』는 이빙허각이 1809년(순조 9)에 편찬한 가정생활 종합 지식백과이다. ‘규합(閨閣)’이란 여성이 생활하는 거처, 혹은 여성 자체를 뜻한다. ‘총서(叢書)’는 여러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엮었다는 뜻으로 규합총서는 여성이 알아야 할 가정생활 지식을 집성한 책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책의 제목은 이빙허각의 남편인 서유본(徐有本, 1762~1822년)이 지은 제목이다. 남편 서유본의 문집 『좌소산인문집(左蘓山人文集)』의 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아내가 여러 책의 내용을 뽑아 모아 그것을 각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

1 음식연구로 이효지, 1981, 「『閨閣叢書·酒食議』調理科學的考察」, 『논문집』 1,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신민자·최영진, 1999, 「규합총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향약성 효과에 관한 고찰 : 주·부식류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정보논집』 1,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정보연구원; 현재국, 2023, 「규합총서에 나타난 이빙허각의 음식관 - 음식디미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溫知論叢』 7, 온지학회, 등과 복식연구로 박경자, 1972, 「閨閣叢書解說-縫紉則·染色·洗衣篇-」, 『研究論文集』 4, 성신여자대학교; 조효숙, 1984,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연구-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심화진, 1994, 「규합총서에 나타난 봉임측 내용분석」, 『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 8,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남미혜, 2022, 「『규합총서(閨閣叢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길쌈」,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등이 있다. 생활문화 관련 연구로는 원보영, 2002, 「『규합총서』의 의료민속학적 연구 : 「청낭결」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2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0 「婦人」 貴婦, 佩錦香囊, 以多爲貴富家.

고, 특히 초목·새·짐승의 성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에 내가 책 이름을 '규합총서'라 하였다.³

『규합총서』는 당대부터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이었다. 시동생 서유구(徐有榘, 1764~1845년)가 쓴 빙허각의 비문에 따르면 『규합총서』는 빙허각이 생존하였을 때 이미 사람들과 친인척들에게 알려져 전사하였다고 한다.⁴ 이처럼 『규합총서』는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급되었기에 빙허각이 겨냥했던 여성 독자층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용들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빙허각은 아버지 평양감사(平壤監司) 이창수(李昌壽)와 어머니 문화 유씨(文化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빙허각의 외숙모는 이사주당(李師朱堂)으로 그녀가 『태교신기(胎教新記)』를 지었을 때 빙허각이 그 발문을 써주는 친밀한 관계였다. 이 사실로 미루어 둘은 학문적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주당의 아들이자 이빙허각의 사촌동생 유희(柳禧, 1773~1837년)는 어머니가 한문으로 쓴 『태교신기』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또한 『시물명고(詩物名考)』, 『물명유고(物名類考)』, 『언문지(諺文志)』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이사주당과 이빙허각은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로 대표되는 인물들로, 이들 집안의 실학적 학풍과 학구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서유구의 문집 『풍석전집(極石全集)』을 통하여 이빙허각의 유년시절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빙허각은 시를 잘 짓고 글쓰기도 잘해서 시집오기도 전에 '여사(女士)'라고 불리었다. 또한 아버지 이창수로부터 『시경(詩經)』과 『소학(小學)』을 깨우쳤다. 다른 또래 아이들은 이미 젓니가 다 빠지고 간니(成齒)가 났음에도

자신의 이만 그대로였을 때에는 본인도 빨리 이를 갈고자 망치로 자신의 아랫니와 윗니를 모두 뽑아 버렸다고 한다.⁵ 이처럼 어린 시절의 이빙허각은 총명하였으며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게 학문을 깨우치고 진취적인 사고를 했던 이빙허각은 조선후기 사회의 여성으로는 주체적인 면모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빙허각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은 청으로부터 고증학, 명물학, 박물학, 서학 등 새로운 학문의 유입과 실학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편찬된 종합농서로 『색경(穡經)』(1703), 『산림경제(山林經濟)』(1715) 등이 있다. 이빙허각의 시가인 달성 서씨 집안은 실학을 주도하던 경화세족이었다. 시할 아버지인 서명응(徐命膺, 1716~1787년), 그리고 시아버지 서호수(徐浩修, 1736~1799년)는 규장각의 초대제학과 직제학을 지낸 관리였다. 서호수는 북경을 두 차례 다녀오며 왕명에 따라 1777년에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1만권, 5022책을 구입하였다. 1790년에는 집안에 소장할 다수의 도서를 구입하였다.⁶ 서명응·서명선·서호수는 중국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편찬되어진 서적들이 유통되는 것을 문제로 여기며 『개사신서(改事新書)』·『식목상총(植木賞總)』·『해동농서(海東農書)』 등 조선의 실정에 맞는 내용의 실학농서와 백과전서를 편찬하였다. 나아가 서호수의 아들이자 빙허각의 시동생인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편찬하였다. 이처럼 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유서 편찬이 진행되었으며, 이빙허각도 중국의 문헌을 취사선택하여 인용하였다. 따라서 『규합총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선의 문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

3 『左蘇山人文集』卷第一, 「江居雜詠」, 「余內子抄輯羣書, 各分門目, 無非山居日用之要, 而尤詳於草木鳥獸之性味, 余爲命其名曰閨閣叢書。」

4 박옥주, 2000,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pp.289-290.

5 徐有集, 『機石全集』, 「渡氏端人季氏墓誌銘」, 「金華知非集卷第七, 墓誌銘」, 「幼騰語絕倫, 父母奇愛之, 不以女子視, 責諸勝, 口授毛詩小學, 輒通其大義, 性激烈好勝人, 方其未能世, 見齊年者普毀齒, 恥己不苦世, 一夕持小推敵拔上下齒始盡, 血術濟口吻, 文獻公見而喜日堅忍不莊, 弱其壽子, 既而不怡日女子從人者世, 使他日事事無拂逆則可慰, 不然而一有差池, 得無自其手狀身千。」

6 김영혜, 2016, 「『閨閣叢書』의 編纂과 筆寫樣相에 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p.14.

다. 그러나 저자가 직접 선택하여 기술한 내용들로 조선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저자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인용 내용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빙허각은 영·정조대의 문화사업으로 실학·고증학·박물학이 성행하던 시기에 살았다. 이 시기에 경화세족인 달성 서씨의 인물들은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고증학, 박물학, 기하학 등의 학문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달성 서씨 집안의 가학은 빙허각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처럼 빙허각은 시가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친가와 외가의 영향을 받아 실학을 중심으로 한 고증학·박물학 기반의 가학에 영향을 받아 『규합총서』, 『청구박물지(淸閨博物志)』 등의 유서와 박물지를 편찬하였다. 빙허각은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고 조선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에 실학을 중시하던 가학의 영향으로 『규합총서』를 편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빙허각은 『규합총서』를 저술하며 인용한 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소견은 신증(新增)이라 써 두었다. 이처럼 인용서를 밝히는 서술 방식은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당대 실학자들의 서술 방식이었다.⁷ 앞서 서유본이 본인의 문집에서 빙허각은 초목·새·짐승 등의 명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였다. 이처럼 이빙허각은 본초지식이 풍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규합총서』를 집필할 때 『본초강목』을 다수 인용하였다.⁸ 『산가락』에서는 과일, 꽃과 밭 재배 작물 위주의 농업지식을 다루었다. 이는 여성이 집안 경영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⁹ 이빙허각이 『본초강목(本草

綱目)』을 탐독한 것은 「산가락」을 저술하기 위하여였을 뿐 아니라 의료 관련 내용을 다룬 「청낭결」의 집필, 나아가 초목을 향으로 사용한 사례의 향 관련 기록을 위한 배경지식이 되었을 것이다. 전통사회에 사용되었던 향재(香材)들은 대부분 한약재와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東醫寶鑑)』 등의 유서와 의서의 지식과 내용을 깨우친 빙허각은 향약재(香藥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여러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남녀가 유별하였으며, 가사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년)은 그의 시에서 아내의 행실 네 가지로 조용한 모습, 따뜻한 말씨, 유순한 덕, 주식(酒食)장만과 길쌈질을 꼽았다.¹⁰ 그의 스승인 실학자 이익(李瀾, 1681~1763년)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글을 읽고 의리를 강론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고, 부녀자는 절서에 따라 조식으로 의복·음식을 공양하는 일과 제사와 빈객을 받드는 절차가 있으니, 어느 사이에 서적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부녀자가 만약 누에치고 길쌈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먼저 시서에 힘쓴다면 어찌 옳겠는가?’라고 하였다.¹¹ 이익은 학문을 남성의 영역으로, 그리고 누에치기와 길쌈과 같은 의복과 음식을 공양하는 등의 가사업무를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성들 또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유구의 회고에 따르면 빙허각의 시어머니 한산 이씨는 사물에는 각각 본분이 있으며, 부녀자의 일은 오직 술과 음식, 실과 삼베뿐이라 여겼다.¹² 빙허각 또한 그녀

7 정해은, 2019,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가정 살림의 지식화」,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p.191.

8 정해은, 2019, 위의 논문, p.215.

9 김영혜, 2016, 앞의 논문, p.33.

10 『順菴集』, 卷一, <警女兒>, ‘婦行不多只有四, 孜孜不怠警朝曛, 貌存敬謹宜思靜, 言欲周詳更着溫, 德以和柔貞烈最, 工因酒食織紵勤, 若將此語銘心肚, 吉福綿綿裕後昆.’

11 『星湖僿說』, 卷十六, 「人事門」, <婦女之教>, ‘…讀書講義是丈夫事婦人有朝夕寒暑之供鬼神賓客之奉奚暇對卷讀誦哉多見婦女通古今說禮義者未必躬行而弊害無窮窮俗與中土不侔凡文字之功非致力不能初非可責也其小學內訓之屬都是丈夫之任宜講究而知其說隨事微誨而已若令閨人緩於蠶織而先務執卷則奚可哉.’

12 정해은, 2019, 위의 논문, pp.195~196.

의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규합총서』 「주식의」에서 ‘아낙네의 할 일이 그저 술과 밥을 의논할 뿐’이라 하였다. 또 여성의 일이 안채 밖을 나가지 않아야 하고, 비록 고금의 일을 통하는 식견과 남보다 나은 재주가 있더라도 ‘혹 문자로 표현하여 남에게 보고 듣게 하려함을 아름다움을 속에 품어 간직하는 이의 도리가 아니다.’¹³라고 생각하였다.¹⁴ 조선 후기 사대부 여성들이 생각한 여성의 주된 역할은 술과 음식, 바느질과 길쌈이었다.

『규합총서』는 「주사의」, 「봉임측」, 「산가락」, 「칭낭결」, 「술수략」의 5편으로 구성되었다. 빙허각의 전통적 가치관은 그가 편찬한 『규합총서』의 편제 순서에도 나타난다. 그는 전통적 가치에서 중시하는 술과 밥에 대해 다룬 「주사의」, 그리고 바느질과 길쌈을 다룬 「봉임측」을 책의 가장 서두에 다루었다. 시대적 배경과 당대의 가치관이 술과 밥, 바느질과 길쌈을 가장 먼저 다루는 편제 순서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편제를 술과 밥이라는 뜻의 주사(酒食), 그리고 바느질과 길쌈이라는 봉임(縫紉)이라 직관적으로 지어 여성이 가정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빙허각은 여성 독자층을 위한 책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규합총서』는 여성이 쓴 유일한 백과전서, 유서로 평가받고 있다. 빙허각은 여성독자를 위하여 책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하였다.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읽고 꾸준히 필사되어 지식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현전하는 『규합총서』는 목판본 2본, 필사본 10본의 총 12본이 전한다. 완질은 전하지 않는데, 필사본의 특성상 대부분의 필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긴 부분만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전하는 편은 「주사의」와 「봉임측」으로 여성 독자층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당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관을 엿볼 수 있다. 「봉임측」을 다룬 본은 8본이 전하며,

그 중 조항법을 다룬 본은 3본이다. 이들 3본은 내용과 표기법을 비교하였을 때 모두 같은 계통으로 밝혀졌다.¹⁵ 현전하는 다수의 「봉임측」들은 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누락하였다. 당시 향은 고가의 물품으로 고위층도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다. 이빙허각은 향이 대중 물품이 아니더라도 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 내용을 저술하였을 것이다. 「주사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외에 열구자탕과 같이 대중적인 음식이 아닌 궁중음식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이빙허각은 여성의 지식과 문화 소양을 넓히기 위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Ⅲ. 「봉임측」에 나타난 향문화

전통시대 향의 용도는 의례, 의료, 방충,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규합총서』에서는 향이 4가지 용도로 사용된 사례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이때 음식을 다룬 「주사의」를 제외한 「봉임측」, 「산가락」, 「칭낭결」, 「술수략」 4가지 편 모두에서 향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주사의」에서도 술의 향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후각적인 요소보다는 미각을 중시한 사항이기에 제외하기로 한다. 『규합총서』의 거의 모든 편에서 향이 사용된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 향의 다양한 사용법과 애향문화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규합총서』의 서문에서 ‘이것들이 다 건강에 간직하는 첫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의 마땅히 연구할 바다.’라 밝히며 가정살림에 필요한 지식을 집성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규합총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빙허각이 당시 사대부 가정살림에 필요한 지식들로 여긴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필사되어 오늘날까

13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규합총서』, 보진재, p.20.

14 정해은, 2019, 앞의 논문, p.197.

15 김영혜, 2016, 앞의 논문, pp.70~71, 83.

지 전하는 내용들은 필사자에 의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채택된 내용들이라 여길 수 있다.

『규합총서』에서 향에 대한 기록은 「봉입측」 편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다. 「봉입측」의 봉입이란 바느질과 길쌈을 뜻하며 이 편에서는 의복과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가정에서 향을 제조하기도 하였으며, 그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향 사용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봉입측」은 오늘날 8분이 전하며, 다른 편제보다 많은 수량과 분량이 전한다. 『규합총서』 「봉입측」을 중심으로 소개된 향의 종류와 사용법을 통하여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들이 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였는지와 향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는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생활기술을 음식, 복식, 주거, 민간요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봉입측」에서 다루고 있는 조향법의 기록을 복식-장식류-화장구류로 다루기도 하였다.¹⁶ 이처럼 「봉입측」에 나타난 향에 대한 기록은 향장문화(香粧文化)와 미용지식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봉입측」에는 향 만드는 법, 매화향법, 향병자법, 의향법, 구자향법, 호신향방 등 5가지 종류의 향방(香方)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불 안사위는 법, 여자의 솜씨(여홍, 女紅)에서 화장도구와 향장 용품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난다. 기존에 「봉입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목에 충실하게 바느질과 길쌈 관련 내용인 옷 만들기, 염색, 세의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향을 포함한 화장도구와 기타 생활지식들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향을 주목하고자 한다.

「봉입측」에서 향을 다루고 있는 항목의 명칭은 ‘향

만드는법(조향법)’이다. 이는 북송(北宋) 홍추(洪芻)의 『향보(香譜)』를 인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향 만드는법’의 내용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운지」에서 ‘향 묻는 법(窺香法)’으로 소개된 것과 같다. 이들은 모두 홍추의 『향보』를 인용한 것으로 원전에는 음향법이라 소개되어 있다. 오늘날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이운지」 국역본의 내용과 고전번역원의 『향보』 원문 해석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규합총서』

○ 향 만드는 법

무릇 향을 화합함에 그 질고 되기를 알맞게 함이 귀하다. 향을 고루 섞어 그릇에 담아 종이로 굳게 봉하여 집 안 땅을 세 치나 너댓 치를 파고 묻어라. 한 달 넘은 뒤 내면 그 향내가 기이하다.¹⁷

『임원경제지』 「이운지」

○ 향 묻는 법(음향법)

일반적으로 향을 배합하고서는 땅속에 묻어야 한다. 그 습도가 적당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을 배합할 때마다 섞는 단계가 끝나면, 약간씩 나누어 부진기에 저장하고 납지로 봉한 후, 집에서 조용한 곳에 3촌~5촌 정도 땅을 파고 묻는다. 1개월 남짓 지나간 뒤에 이를 꺼내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피우면, 그 향이 더욱 향기롭고 진하다.¹⁸

『향보』

○ 향을 움에 저장하는 방법

향을 모아 배합할 때는 움 속에 넣어야 하는데 그 습도를 알맞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번 향을 모아 배합한 뒤에 적당량을 덜어 액체가 새지 않는 그릇을 사용하여

1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15, 『규합총서의 전통생활기술집』, 휴먼컬처아리랑.

17 이병허·각정양·안주, 2008, 앞의 책, p.193, ○조향법 무릇 향을 화합함대 그 조소습을 득등케 함이 귀하니 향을 화균하여야 그르시 담야 조희로 굳게 봉하여 집속 싸를 삼오촌을 파고 무덧다가 월여의 내면 그 향취가 기이하니라.

18 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2018, 『이운지』 1, 풍석문화재단, p.378. 窺香法

凡和合香, 須入窺. 貴其燥濕得宜也. 每合香和訖, 約多少, 用不津器貯之, 封之以蠟紙, 於靜室屋中入地三五寸處之, 月餘日取出, 逐旋開取然之, 則其香尤綺靨也.

저장하고 밀랍을 바른 종이로 밀봉하여 깨끗한 집 안에 땅을 3치~5치 파고 묻는다. 달포가 지난 뒤에 파내어 조금씩 꺼내어 피우면 향기가 더욱 진하다.¹⁹

세 문헌 모두 향 제조에 있어 습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원전인 『향보』는 향을 제조할 때 습도 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배합한 향을 액체가 투과하지 않는 그릇에 담거나 밀랍 바른 종이로 밀봉하는 것 모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향이 숙성되는 기간 동안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여 습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빙허각은 음향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향을 제조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하여 향목의 명칭을 조향법이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빙허각의 직접 향을 제조한 경험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규합총서』의 ‘조향법’은 이빙허각이 『향보』의 내용을 보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향을 제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었던 ‘질고 되기를 알맞게 함’인 습도 관리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의 질고 되기를 알맞게 하는 것이 향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함께 소개된 향방(香方)은 다음과 같다.

○ 매화향법

감송 · 영릉향 각 1냥 · 단향 · 회향 각 반 냥 · 정향 일 백매(一白枚) · 용뇌 조금을 곱게 가루 하여 꿀에 개어 섞

어라. 기이하게 사긴 판에 박아 알맞게 말린 후 주사(朱砂)로 위에 입히고, 자개와 금채를 한다.²⁰

○ 향병자법

좋은 숯 한 근과 접시꽃 잎이나 꽃이나 한 근 반을 같이 찼어 곱게 만들어 묽은 풀을 조금 섞어 합하여 떡처럼 만들어 탄자 크기로 환을 지어 벌레 껍데기 말려라. 병 속에 넣어 두고 향 피울 적에 피워 향료에 묻으면 오래도록 사외지 않으니, 접시꽃이 없거든 잇꽃(紅花)으로 대신 쓴다.²¹

○ 의향법

영릉향 한 근 · 감송 · 단향 각 10냥 · 정향피 · 신이 반 냥 · 회향 1푼을 찼어 곱게 가루하여 용뇌 · 사향 조금 넣어 쓰라.²²

○ 구자향법

애납 한 근 · 정향 반 냥 · 산조 대추 두드려 찼 고(膏) 1자완(磁椀) · 단향 반 냥 · 향부자 · 백지 각 반 냥 · 모향 반 냥 · 초두구 거피 1매 · 용뇌 조금을 지어 대추를 고와 조린 꿀에 알맞게 섞어 절구에 넣어 찼되 절구에 붙지 않거든 곧 그쳐 오동씨 크기로 환을 지어 말려 늘 한 알씩 피우면 그 냄새가 장차 스러지려고 할 때, 바로 위로 올라 모이어서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는다.²³

○ 호신향방

침향 · 백단향 · 강진향 · 당목향 · 유향 각 2전 · 곽향 4전 · 영릉향 · 백지 각 8전 · 현삼 2전 · 고본 · 향부자 각 8전,

19 『香譜』 「窰香法」

凡和合香，須入窰，貴其燥濕得宜也。每合香和訖，約多少，用不津器貯之，封之以蠟紙，於靜室屋中，入地三五寸瘞之。月餘日取出，逐旋開取然之，則其香尤齷醜也。 고전번역원 김종태 2024.02.10. 번역 및 표점.

20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p.193~194, ○ 미화향법, 감송 냉능향 각 일냥, 단향 회향 각 반냥 당향 일푼미·농뇌 우위세말 이년밀화합향야 그의 크게 삭인 판의 박아 물노오기를 득들이 혼 후 주사 위의 향야 나전(자개)과 금채를 혼느니라.

21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194, ○ 향병자법 조흔 숯 혼근과 촉규화엽이나 솟치나 혼근반 혼가지로 시허 7늘게 민드라 묽은 풀을 조금 섞어 합하여 썩쳐로 민드라 단재대 작환향야 벗히 미이 물뇌여 병속의 너허 두고 향 피울 적 피여 향노의 무드면 오래도록 스흐지 아닛느니, 규화가 업거든 흥화로 대응느니라.

22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194, ○ 의향법 냉능향 일근 감송 단향 각십냥 당향피반냥 신이반냥 회향일분 띠허 세말하고 농뇌 사향 조금 너허 쓰라.

23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194, ○ 국조향법 이납씩년송수상프른웃 일근 당향반냥 산조디초두드려 찼고 혼조완 다향반냥 향부자 빙지 각반냥 모향 반냥 초두구 거피 일미 농뇌쇼허 우제향야 디조 고와 조린 꿀의 화합향기를 득들이 향야 절고의 너허 띠오디 절고의 붓디 아니커든 즉시 그쳐 오즈디 작환향야 말뇌여 미양 혼 환식 피오면 그 니가 장춧 진코저를 제 바로 우흐로 올라 모히여 오래도록 흐터지 아니 혼느니라.

이 11가지로 만드는 법은 갑자일에 모아서 병자일에 찢어 입 자일에 호로(胡盧)에 넣어 감추되, 아기 낳은 여자·상제·여인·닭·개를 뵈지 말고 피우면 똑바로 하늘로 올라가 온갖 귀신이 도망치고, 몸에 차면 온갖 병이 없고 요사스러운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 급한 어려움을 만나거든 한 알을 씹어 하늘을 향하여 뿜으면 무기가 감히 범치 못한다.

능엄경에 이르되, 향엄동자가 백불언아제비구소수침향 하면 향기 적연히 내입비등하여 비목비공비연비화 기무소 자래무소종하니, 유시의 초발명무라득나한이라 하였다.²⁴

『봉임측』에서 ‘향 만드는 법’의 항목으로 소개한 향방은 매화향법, 향병자법, 의향법, 구자향법, 호신향방으로 총 5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여러 종류의 향재를 사용하여 만드는 합향(合香)으로, 호신향방을 제외하면 모두 『향보』에 나오는 향방이다. 매화향법의 경우 원문에서는 주사를 입히고 자개와 금채를 더하지 않았다.²⁵ 그러나 『규합총서』에서는 자개와 금채를 하였다. 매화향방의 향방은 감송향, 영릉향, 단향, 용뇌 등 당약재를 다수 사용하였다. 여기에 자개와 금채를 더하였으니 부유층만이 사용할 수 있던 향방으로 보인다. 향병자법의 경우 꽃으로 만드는 향이기에 비교적 만들기 쉬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잇꽃, 즉 홍화꽃은 염색재료로 사용되는 꽃이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서도 홍화가 염색재(入染物種)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염색재로 사용한 홍화는 나라에서 생산을 강제하여 공납품으로 받았다. 또한 연산군대에는 향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재배가 장

려되었다.²⁷ 향병자법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구자향법으로 환향 제조법을 소개하였다. 호신향방은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향방이다. 육십갑자의 첫 번째 날인 갑자일에 재료를 모아 13번째 날인 병자일에 찢어내고 49번째 날인 임자일에 호로병에 넣어 감추어야 한다.

의향법은 의복에 향기가 나게 할 뿐 아니라 벽충의 용도로 벌레로 부터 의복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향방이다. 의향은 의복이나 서화를 보관할 때 함께 넣어 두어 병충의 해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의향법은 『동의보감』, 『제중신편(濟衆新編)』 등에도 기록된 향방으로 복식을 보존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합총서』에 소개된 의향법은 의학서적에 나타난 의향법과 비교하면 재료와 각 재료별 혼용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²⁸ 『봉임측』에 소개된 의향법은 향이 진한 사향이 이례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의학서적에 기록된 의향방에는 8~9종의 당약재가 사용되었다. 『규합총서』의 의향법은 5종만의 당약재를 사용하고 소량의 당약재 2종을 사용하여 다른 의학서적보다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의향을 제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사용된 소량의 용뇌와 사향은 진한 향기가 나는 향재로 의복에 좋은 향기를 배도록 할 때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향방은 당약재나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을 의향법은 비교적 수급이 용이한 향재들을 사용하는 제조법이 소개되었다.

이빙허각은 중국의 향 전문서 『향보』를 인용하여

24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195. ○ 호신향방 침향 빅단향 강진향 당목향 유향 각이전 곽향 소전 냉승향 향벽디 각팔전 현삼 이전 고본 향부조 각팔전 우 십일종을 만드는 법은 갑자일 슈합 병자일 때허 무자일 쏘의 셋거 경자일 스스로 성명을 일컫르며 환을 부비여 임자일 호로의 녀허 곱초디 산부 효조 녀인 계견을 뵈디 말고 피오면 직상천문후야 빅귀 도주후고 춘면 빅병이 없고 사기가 불범후고 급난을 만나거든 훈 환을 뵈어 향공후야 씹으면 병기가 불감범후나니라. 능엄경의 왈 향엄동자가 빅불언아제비구소수침향후면 향기적연히 내입비등후야 비목비공비연비화기무소간니무소종후니 유시의 초발명무라득나한이라 후니라.

25 『香譜』 「梅花香法」 甘松 零陵香各一兩, 檀香 茴香各半兩, 丁香 一百枚, 龍腦少許 右為細末, 煉蜜令合和之, 乾濕得中用.

26 『度支準折』 「入染物種」, 紅花 一斤 一升重一兩 一錢一分

27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답게, p.38.

28 이경희·이은주, 2013,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본 의향(衣香)의 용도와 재료」, 『한복문화』 16(1), 한복문화학회, p.127.

다양한 향방을 소개하였다. 중국의 서적을 인용하였기에 대부분의 향방이 당약재를 사용한다. 의향법은 복식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동의보감』에 소개된 의향법과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사용되는 당약재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제조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뇌와 사향을 사용하여 좋은 향기가 나는 방향재로의 역할도 함께 행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가정살림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보았을 「봉임측」에 향방이 소개된 것을 보아 향을 제조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을 즐기기 위한 용도 외에 실용적인 용도의 생활지식으로 소개된 사례도 나타난다. ‘불 안사위게 하는 법’을 소개하며 향이 사용된 사례가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 안사위게 하는 법: 생규엽

○ 규화잎을 찢어 숯가루에 섞어 떡처럼 만들어 벌레 말려 향을 피우면 날포 되어도 꺼지지 않는다.²⁹

○ 애납향

소나무 껍질 위에 푸른 옷 이름은 낭태니 가루로 만들어 맑은 물에 환을 지어 말려 향에 섞어 피우면 그 내가 모여 등그러 흠어지지 않고, 빛이 무르고 희어 가히 사랑스러운 고로 이름 지어 애납향이라 부른다.³⁰

불을 안사위게 하는 법으로 생규엽과 애납향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발화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려웠다. 이때 화로, 화

투, 봉덕 등의 도구들이 불씨를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불씨의 계승은 곧 집안의 계승을 상징하였으며,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집안의 가운과 재운을 좌우한다는 속신으로까지 이어졌다. 불씨의 계승양상에 대한 믿음으로 마을의 동제나 향교의 제례를 지낼 때 특정 가문의 불씨를 옮겨다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씨를 지키는 업무는 여성의 소임으로 취급되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전승되었다.³¹ 불씨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발화촉진제로써 규화잎과 애납향을 향으로 피웠다. 규화잎은 접시꽃잎으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품이었다. 애납향 또한 소나무 껍질에 생기는 이끼 낭태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불씨를 지키는 역할뿐 아니라 공간에 좋은 향기를 채우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여성의 단장 도구로 소개된 향장 용품에 대한 내용이다.

○ 여자의 숨씨(여홍): 생향첩(生香屨, 향내가 나는 신)

○ 부하첩 옆과 안을 다 침향으로 하니 이르기를 생향첩이라 하더라.³²

○ 초

걸이 담완을 사랑하여 촉심을 끝까지 다 이향(異香)과 보배가루로 하니 불을 켜매 이상한 빛이 수리에 있더라.³³

○ 장미수

주 현덕 5년에 곤명국이 장미수 15병을 바치니, 옷에

29 이병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214, ○ 뉴숙화법 ○ 생규엽 국화잎을 찢어 숯가루 섞어 떡처럼 만든다. 민드라 서건하여 향을 피우면 날포 새지 * 아닛느니라.
30 이병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214, ○ 소나무 껍질 우히 푸른 옷 이름은 낭태니, 작말하여 청슈의 작환하여 물뇌여 향의 셋거 피우면 그 내가 모여 등그러 흐터지 * 아니코 빛치 프르고 희어 가히 사랑스은고로 명알 이납향이니라.
31 권태호, 2008,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회, pp.15~19.
32 이병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262, ○ 생향첩 향이나신 무하첩 냇 안을 다 침향으로 하니 이르기를 생향첩이라 하더라.
33 이병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263, ○ 촉 걸이 담완을 사랑하여 촉심을 끝까지 다 이향과 보배골드로 하니 불을 켜매 이상한 빛치 수리에 있더라.

뿌리면 오래되어 헤어져도 향내가 가시지 않더라.³⁴

‘여자의 솜씨(여홍)’에서는 연지대, 옥발, 건 등의 의복과 곤지, 도화 등의 화장품 등 여러 장신구와 화장 도구를 소개하였다. 이때 향기가 나는 향장도구로 소개된 사례가 생향첩, 초, 장미수이다. 생향첩은 신발의 일종으로 향내가 나는 신을 일컫는다. 기록에 따르면 침향으로 장식한 신발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향내가 나도록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홍’은 『설부(說郛)』를 인용한 내용이다. 『설부』는 중국 원말(元末)·명초(明初) 시기의 도종의(陶宗儀)가 편찬한 총서(叢書)이다. 이때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시대에 사용되지 않던 물건들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개하기 보다는 인용문헌을 통하여 다양한 물품들을 소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IV. 사대부 여성의 향에 대한 인식

한반도에 불교의 유입과 함께 전래된 향은 고가의 수입품이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서양에서도 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별되었다. 의례용으로만 사용하던 시기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위엄과 위계를 나타냈으며, 향장의 용도로 사용된 이후에는 사치품과 고급 향유품으로 확대되었다. 고려시대 부인들은 향낭을 많이 소지할수록 부유한 것으로 여겨졌다. 향에 대한 사대부 여성의 인식이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규합총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현전하는 다수의 「봉임측」 본에서 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누락하였다. 당시 향은 고가의 물품으로 고위층도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다. 향이 대중 물품이 아니었음에도 이빙허각은 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기에 이 내용을 저술하였을 것이다. 이빙허각은 여성의 지식과 문화 소양을 넓히기 위

한 내용을 여럿 수록하였으며, 향도 그 중 하나였다.

『규합총서』만으로 사대부 여성의 인식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왕실에서도 여성들이 향장의 용도로 향을 사용하였다. 당대 여성들의 향 사용 목적은 미의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가장 컸다. 하지만 좋은 체취를 갖는 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며, 여성들만이 소망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규합총서』에는 향장 외에 생활지식으로의 향 사용법 또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사대부 여성이 남긴 기록이 많이 전하지 않아 『규합총서』를 저술한 이빙허각의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동시대에 향에 대한 유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운지」가 대표적이다. 「이운지」는 세속을 떠나 임원에서의 청아한 즐길 거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때 향은 차, 금(琴)과 검(劍), 꽃, 돌 등과 함께 하나의 즐길 거리로 소개되었다. 사대부 남성 서유구는 향을 임원에서 향유하는 감상용 완물(玩物)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서술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유구는 제법과 향료, 향도구 등 향의 모든 것을 「이운지」 “산재청공(山齋淸供)” ‘향공(香共)’에서 한꺼번에 다루었다. 반면 사대부 여성 이빙허각은 가정생활에서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 물건으로 바라보았다. 향내를 즐기는 완물로 인식한 사대부 남성 서유구와 달리 사대부 여성 이빙허각은 가정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향의 실용성을 중시하였다. 이빙허각도 서유구와 같이 향의 쓰임이라는 항목으로 다양한 용법을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빙허각은 「봉임측」, 「산가락」, 「청낭결」, 「술수략」의 편제의 주제별로 상황과 쓰임에 따라 향이 사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빙허각과 서유구는 동시대 같은 집안의 형수와 시동생 사이였다. 동시대에 비슷한 삶을 산 인물들로 두 사람의 저술에서 남성과 여성의 향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1806년에 유배생활을 시작

34 이빙허각·정양완 역주, 2008, 앞의 책, p.267, ○ 장미수 주현덕 오년의 곤명국이 장미수 열다섯병을 헌하니 오솔 풀면 오래여 히어져도 향은 이멸치 아니더라.

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때 유서를 편찬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가학으로 명물학, 고증학, 실학 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서유구의 「이운지」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구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는 유배생활 중에도 사대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 「이운지」였다.³⁵ 「이운지」에서 다루고 있는 향, 차, 금(琴), 검(劍), 꽃, 돌 등을 즐기고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은 혼자보다는 벗과 시간을 즐기며 소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³⁶ 서유구는 관직생활을 하였기에 여성에 비하여 체면치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이빙허각은 만며느리로 더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듯하다. 남편 서유본은 43세에 종9품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어 6개월도 채 출근하지 못하고 1806년 숙부 서형수(徐瀼修)가 옥사사건에 연루되자 함께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서유구보다 상대적으로 고된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린 이빙허각은 저서에 여성들의 가정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빙허각은 편제에 따라 향이 사용되는 사례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빙허각은 사용되는 물품이 주가 아닌, 쓰임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물품의 용법을 저술한 것이다.

향에 대한 내용은 『규합총서』의 5편제 중 음식을 다룬 「주사의」를 제외한 4가지 편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그중 바느질과 길쌈이라는 뜻의 의복과 화장도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봉입측」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다. 바느질과 길쌈은 이빙허각과 당대 여성들이 중요시 여기던 여성의 소임이었다. 이는 가장 많이 필사되고 전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정지식을 다루고 가장 많이 읽힌 편제라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저자인 이빙허각은 가정을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향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필수사항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규합총서』 「봉입측」에서 다루고 있는 향에 대한 지식은 의류 보관과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지식과 향장으로의 미용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빙허각이 인식한 향은 보존재와 방향재, 생활도구, 향장도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은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 중 하나였으며,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물품으로 여겨졌다. 나아가 대중적인 물건이 아니었음에도 향에 대한 지식 숙지는 여성의 문화적 소양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입측」에 소개된 의향법은 의복에 향기가 나게 할 뿐 아니라 벽층의 용도로 벌레로부터 의복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향방이다. 왕실에서도 의복을 보관하고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한 용도로 의향을 사용하였다. 의향은 왕실 연례 제조 진상품이었다.³⁷ 『규합총서』에 소개된 의향법은 특히나 여성에게 좋은 향내가 나는 것이 미와 선의 조건으로 요구되었기에 향이 진한 사향이 이례적으로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동의보감』의 의향법보다 『규합총서』에 기록된 제법으로 만드는 의향에 소용되는 당약재의 종류가 적어 비교적 더 저렴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용된 소량의 용뇌와 사향은 진한 향기가 나는 향재로 의복에 좋은 향기가 배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규합총서』의 향방은 재료를 수급하기 용이하였을 것이기에 더욱 실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합총서』에서 다루고 있는 향방은 『임원경제지』에서도 대부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규합총서』에 소개된 향들은 대중적인 향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규합총서』에 소개된

35 신영주, 2005,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pp.393~394.

36 신영주, 2005, 위의 논문, pp.401~402.

37 『內醫院式例』 「年例進上」 芙蓉香, 衣香.

의향법은 수급이 용이한 향재를 사용하였으며, 향내가 강한 용뇌와 사향을 사용하여 의복에 좋은 향기가 배여들 수 있었기에 합리적인 의향법이었을 것이다. 『규합총서』와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조향법’과 ‘음향법’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저자들의 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빙허각은 직접 향을 제조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향을 피우고 즐기는 향유자의 시점이 아닌 제조자의 시점으로, 당대의 사대부 여성들은 향 제조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유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던 집안 여성의 임무였다. 시집을 갈 때 불씨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색시는 진수분(眞水粉) 한냥과 산부탄(山蟬炭)을 섞은 발화촉진제를 준비하였다고 한다.³⁸ 이빙허각은 향료인 생규엽과 애납향을 발화촉진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불씨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씨를 보관하는 공간을 좋은 향기로 채우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물품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규합총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소설 『여용국전』에서도 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여용국전』은 안정복이 쓴 것으로 알려진 소설로, 여성의 얼굴을 지키는 화장도구의 이야기이다. 이때 병부시랑(兵部侍郎) 방취(芳臭)는 육향(六香)으로, 일종의 향수이다.³⁹ 앞서 안정복은 아녀자의 행실 네 가지로 조용한 모습, 따뜻한 말씨, 유순한 덕, 주식(酒食) 장만과 길쌈질을 꼽았다. 이처럼 안정복은 전통적 여성상을 보유한 인물로 그가 쓴 『여용국전』에 등장하는 화장품들은 여성에게 요구되던 미적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화장품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안정복과 이빙허각이 살았던 18~19세기는 여성에게 좋은 향내가 요구되던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요구로 인하여 여성들은 좋은 향취를 갖기 위해 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였다. 이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이빙허각은 『규합총서』에 향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수록하였다.

위생이 좋지 않던 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값비싼 향재를 소유한 것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신분을 구별하는 요소였다. 따라서 좋은 향내가 나는 것은 미의 요소로 여겨졌으며, 나아가 해외로부터 수입한 향재를 소유한 것은 상위계급의 상징이었다. 개항 이후 서양으로부터 비누가 소개되며 위생이 좋아지고, 몸에서 나는 악취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값비싼 향 소비를 대체하게 되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향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청일전쟁 직후 쌀 한 말에 80전이던 시기에 비누 1개의 값은 1원으로 고가의 물품이었다. 그럼에도 비누는 때가 잘 빠지고 사용이 편리하며, 좋은 향기와 장기간 보관에 용이하여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⁴⁰ 비누 냄새를 멧쟁이 냄새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고가의 비누는 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멧쟁이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비누를 맨얼굴에 문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⁴¹ 이와 같이 보편적인 미의 요소인 좋은 향취는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좋은 향방을 다루고 있는 「봉임측」은 여성 독자들의 미용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었을 것이다.

「봉임측」이 전하는 8본 중 3본에서만 조향법을 다루고 있다. 이 3본은 정양완 소장 2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본으로 이들은 한 계통으로 분류되었다.⁴²

38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p.144.

39 이민희, 2010,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p.27.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p.643.

41 전완길, 1999,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110.

42 김영혜, 2016, 앞의 논문, p.71, 89.

이 중 정양완 다본만 1910년대에 필사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필사년도 미상이다. 적어도 1910년대까지는 일상에서 필요한 향을 제조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로 중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 향이 사용된 것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과 병충으로부터 의복을 지키고 의복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한 것이 가장 컸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향은 비누가 보급되며 대체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비누는 널리 보급되었다.⁴³ 따라서 비누가 향을 대체하며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서 향을 제조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규합총서』는 고증학을 기반으로 서술되어 본인의 의견은 신중이라 밝혀두고, 인용한 서명을 함께 명시하였다. 여성 실학자로 불리는 이빙허각과 이사주당은 유가 경전을 인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주장에 유가경전의 대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용법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주장에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⁴ ‘조향법’의 경우 유가 경전이 아닌 향 전문서적 『향보』를 인용하였다. 이처럼 빙허각은 향을 제조할 때 중요한 요소를 말하기 위하여 『향보』를 인용하여 간접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규합총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은 유서로 저자 이빙허각은 가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집성하였다. 이때 향에 대한 모든 사례를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용도에 맞는 편에서 향의 사용 사례를 다루었다. 이는 쓰임과 용도라는 사용 물품의 실용성을 증시한 내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빙허각은 향을 즐기기 위한 완물이 아닌 가정생활 운영에 필요한 도구로 여겼다. 향은 미용과 향장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는 위생과 관련한 보편적 욕구였다. 『규

합총서』의 의향법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향법을 소개하였으며, 직접 향을 제조한 경험이 있는 이빙허각은 향을 만들 때 중요한 기술을 소개하였다. 가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여성을 위한 유서를 편찬한 이빙허각의 실용성 증시와 실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빙허각은 『규합총서』를 통하여 여성의 문화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여성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지식과 실용적인 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V. 맺음말

향에 대한 사대부 여성의 인식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규합총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규합총서』 서문에서 ‘이것들이 다 건강에 간직하는 첫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의 마땅히 연구할 바다.’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이빙허각이 당시 사대부 가정살림에 필요한 지식들로 여긴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중적이지 않은 향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였다. 필사되어 오늘날까지 전하는 내용들은 필사자에 의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채택된 내용들이라 여길 수 있다.

이빙허각은 친정과 시가로부터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다. 당시 여성의 주된 역할은 술과 음식, 바느질과 길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빙허각도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년시절부터 학문에 뜻이 있었으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빙허각은 『규합총서』를 편찬하며 여성의 지식과 문화 소양을 넓히기 위한 여러 내용을 수록하였다.

『규합총서』는 주제에 따른 「주사의」, 「봉임축」, 「산

43 전완길, 1999, 앞의 책, p.109.

44 김세서리아, 2018, 「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 : 이사주당의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빙허각의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회, p.10.

가락, 「청낭결」, 「술수략」의 5편제로 구성되었다. 이때 「봉입측」은 가장 많이 필사된 부분이며, 다양한 향 사용법을 다루고 있다. 이빙허각은 향을 하나의 항목으로 여러 용도를 소개하지 않고 각 주제에 따른 향의 다양한 사용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학사상에 기반하였으며, 향의 다양한 실용적 쓰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합총서』에서 다루고 있는 향에 대한 지식은 의류 보관과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지식과 향장문화에 대한 미용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빙허각이 인식한 향은 보존재와 방향재, 생활도구와 향장도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은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 중 하나였으며,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물품으로 여겨졌다.

「봉입측」은 8본이 전래되어 가장 많이 필사된 편제로 추정된다. 「봉입측」은 『규합총서』에서 향에 대한 가장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는 편이다. 이때 「봉입측」에는 향 만드는 법, 매화향법, 향병자법, 의향법, 구자향법, 호신향방 등 5가지 종류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불 안사위는 법’, ‘여자의 솜씨’에서 화장도구와 향장 용품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있다. 사대부 남성과 달리 이빙허각은 향을 즐기기 위한 완물이 아닌 가정생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 여겼다. 「봉입측」에 소개된 의향법은 용도와 목적에 맞는 일반적으로 전래되던 것과 다른 향방을 소개하였다. 불씨의 계승은 곧 집안의 계승을 상징하였으며 이는 대대로 이어지던 집안 여성의 임무였다. 이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 향들은 발화촉진제와 방향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지 물품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10년대까지는 향을 제조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로 중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살림을 운영하는데 있어 향이 사용된 것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과 병충으로부터 의복을 지키고 의복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한 것이 가장 컸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향은

1930년대에 비누가 널리 보급되며 대체 되었을 것이다. 비누가 향을 대체하며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서 향을 제조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규합총서』에 소개된 향 관련 지식은 의류 보관과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지식과 향장문화의 미용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은 미용과 향장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는 위생과 관련한 보편적 욕구였다. 이처럼 실용적인 가정지식과 미용지식을 다룬 『규합총서』는 당대 독자들이 원하던 지식을 충족시켜 주었다. 이를 통하여 가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여성을 위한 유서를 편찬한 이빙허각의 실용성 중시와 실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빙허각은 『규합총서』를 통하여 여성의 문화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여성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지식과 실용적인 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고전문헌

- 『宣和奉使高麗圖經』
- 『香譜』
- 『辟疫神方』
- 『山林經濟』
- 『順菴集』
- 『左蘇山人文集』
- 『機石全集』
- 『內醫院式例』
- 『度支準折』

학술논문

- 권태효, 2008,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학회.
- 김세서리아, 2018, 「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 : 이사주당의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빙허각의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회.
- 남미혜, 2022, 「『규합총서(閨閣叢書)』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길쌈」,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 박경자, 1972, 「閨閣叢書解說-縫紉則·染色·洗衣篇-」, 『研究論文集』 4, 성신여자대학교.
- 박옥주, 2000,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 신민자·최영진, 1999, 「규합총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향약성 효과에 관한 고찰 : 주·부식류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정보논집』 1,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정보연구원.
- 신영주, 2005,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 심화진, 1994, 「규합총서에 나타난 봉임족 내용분석」, 『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 8,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 원보영, 2002, 「『규합총서』의 의료민속학적 연구 : 「청낭결」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 이경희·이은주, 2013,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본 의향(衣香)의 용도와 재료」, 『한복문화』 16(1), 한복문화학회.
- 이효지, 1981, 「『閨閣叢書 酒食議 調理科學』의 考察」, 『논문집』 1,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 정해은, 2019,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가정 살림의 지식화」,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 현재국, 2023, 「규합총서에 나타난 이빙허각의 음식관 — 음식디미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溫知論叢』 77, 온지학회.

학위논문

- 김영혜, 2016, 「『閨閣叢書』의 編纂과 筆寫樣相에 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효숙, 1984,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연구-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답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15, 『규합총서의 전통생활기술집』, 휴먼컬처아리랑.

참고문헌

- 서유구 ·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2018, 『이운지』 1, 풍석문화재단.
- 이민희, 2010, 『여용국전/어득강전/조충의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이병허각 · 정양완 역주, 2008, 『규합총서』, 보진재.
- 전완길, 1999,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Noble Women's Culture and Perception of Incense and Herb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Gyuhap Chongseo』, 『BongimCheok』

HA Sumin

Ph.D Candidate, Dept.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sumincense@naver.co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noblewo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ceived incense and herbs, focusing on the 『Gyuhap Chongseo(閨閣叢書)』 a compendium edited by Yi Bingheogak(李憑虛閣, 1759~1824). The 『Gyuhap Chongseo』 is a classified collection of knowledge deemed essential for managing a noble household. By analyzing the content related to incense and herbs focused on 『Bongim Cheok』. This study reveals Yi Bingheogak's practical and realistic understanding of incense and herbs. For Yi, incense and herbs transcended mere cosmetic applications and luxury and served as indispensable tools in health and hygiene and domestic skills for traditional household management.

While it may be challenging to generalize the perception of noblewomen solely based on the 『Gyuhap Chongseo』 the consistent transcription and transmission of the text suggest it resonated with the noblewomen's sentiments. With limited records left by noblewomen themselves, this study primarily explores Yi Bingheogak's perspective, who provided detailed knowledge and applications of incense and herbs across the compendium's sections. This reflects Yi's intention to broaden women's knowledge and cultural literacy, and contribute to improved quality of life through practical knowledge.

This study demonstrates Yi's recognition of incense and herbs as vital commodities for the operation of domestic life, and illustrates how noblewomen of the Joseon Dynasty actively contributed to society and the household through knowledge and practical activities. The use of incense and herbs for beauty and domestic knowledge in various fields of traditional knowledge underscor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oblewomen's perception and use of incense and herbs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words 『Gyuhap Chongseo(閨閣叢書)』, Yi Bingheogak(李憑虛閣), Traditional knowledge, Fragrance culture, Female Silhak Scholar

Received 2024. 6. 25. | Revised 2024. 7. 18. | Accepted 2024. 8. 7.

